

행복한 **책** 읽기

볼프강 라인하르트 '거짓말하는 사회' <플래닛미디어 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워싱턴 성추행 파문 이후, 그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어 보였다. 갖은 추측과 상상력만이 활개를 칠뿐 진실성 여부는 무의미했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애써 도모하던 일이 어긋났을 때 원하지 않은 실수로 곤경에 처했을 때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본다. 윤 전 대변인이 그랬듯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존중감과 충돌하는 낯뜨거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수를 저지른 현실마저 까맣게 지워버린다. 허구를 내세워 면피할 수 없는 지경임을 알더라도 최면을 걸어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거짓말은 진화한다. 독일의 역사학자 볼프강 라인하르트는 사회와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거짓말도 자연 도생하는 것으로 봤다.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도 거짓말을 했다. 대량살상무기와 생물학 실험실을 찾아냈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무기를 발견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정작 이라크에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거짓 공약을 내걸지 않은 정치인을 본 적이 있나.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그려진 진실과 충돌하는 미디어 시장에서도 거짓이 판친다. 미디어 공룡은 진실의 목을 죄고 세상을 허

거짓말의 진화

거짓은 의례적이고 필수적이며 심지어는 유익한 것으로까지 규정했다.

사람은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 한다. 성경에도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했으니 소소한 일상의 거짓말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남을 속이지 말자. 진실만이 진리다. 이렇게 외치지만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과연 진실만이 통용되는 인간사회가 가능한 것인가.

저자는 거짓말하는 사회의 모습을 정치, 경제, 미디어, 학문, 일상 등 다각도에서 들여다봤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경우처럼 섹스 스캔들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사에게서 무시로 터져 나온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애매한 다의적 진술로 성추문 위기를 모면

구화시킨다. 진리 탐구가 본래의 목적인 학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거짓말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따라 멋진데?' 라는 달콤한 거짓말은 들어도 싫지 않다. 성적이 취약한 학생에게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교사, 악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 아이에게 부부싸움을 감추려 하는 부모, 이들의 선량한 거짓말을 탓할 수는 없다.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상대적 기준이 날로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거짓은 이미 필요악이었다. 위선은 도덕의 조건이 되고 거짓은 민주주의의 양분이 되어 사회가 유지된다. 자기합리화에 능숙한 거짓말쟁이일수록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서 진리와 진실에 대한 동경을 몰아낼 수는 없다. 진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을 가려낼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5·18 왜곡 상처받은 광주에 힘 댄으면”

광주 시립극단(31일~6월 2일)과 '빨' 공연, 보성출신 김은성 희곡작가



광주시립극단과 '빨'을 공연할 김은성 작가

안톤 체홉 '갈매기' 원안

광주항쟁 그 후 1년

질퍽한 사투리 벌교 배정

리 막걸리를 마시곤 했다.

“담양에 내려가기 전에는 서울 연희창작촌에 머물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바로 옆이었다. 밤에 쉬 취해 목을 하다 경비원들에게 몇차례 찍히기도 했다(웃음). 참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 대통령 옆집에서 망월묘역 근처로 내려간 게. 담양에서 '목란언니'를 비롯해 많은 작품을 써내려갔다. '빨' 역시 항상 머릿속에서 머금고 있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많았다. 비주류의 역사는 누가 노래하고 기억해주는가를 생각하며 이 작품을 썼다. 서울 공연하면서 광주분들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광주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싶다. 광주 공연은 큰 축복이다. 아프고 힘들게 낳은 작품인데 광주에 누가 되지 않았냐는 걱정도 든다.”

“빨”은 진한 전라도 사투리가 일품이다. ‘나지, 주구미, 풀뚜기’ 등의 가사가 등장하는 노래 ‘빨’도 재미를 더한다. ‘빨’은 2011년 탐양 장광 ‘글을 낳는 집’에서 썼다. 망월동과 가까운 곳. 망월묘역에 다녀 오면 자주가던 ‘꽃차’에 들

요즘 역사 참 너무해

다시 광주부터 출발해

역사 물줄기 새롭게 바뀌어

민으로 떠돌았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 책이 언제나 위로가 됐다. 평단 등 연극계에서는 내 작품이 풍자대에 전착하는 ‘이 시대 이야기’라는 점, 공력을 많이 들여, ‘꾸준히’ 쓰는 것에 집수를 주는 것 같다.”

김 작가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작가로 한예종 스승 황지우와 역사를 향한 반골 기질이 있고 미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글을 쓰는 소설가 윤희길을 꼽았다.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아리랑축전 주제공연 희곡을 쓰게 될 것 같은데 내심 생각한 제목이 ‘다시 불러야 할 그 노래’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태가 벌어지기 전 전해진 제목이라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은 아리엘 도르프만의 ‘과부들’이다. 칠레 피노체트 정권 당시 실종자건을 소재로 한, 정말 소름 끼치는 작품이다. 우리 현실에 맞게 꼭 재해석

해보고 싶다. ‘과부들’도 주제 공연의 텍스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김씨는 팜플릿에 실린 ‘작가의 말’에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려왔듯 다시 광주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언젠가 ‘역사의 말이여, 요라고 아물딱지게 가야하는 법이여!’ 한문장 오지게 찍고 갈 날이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빨’은

1981년 봄, 광주에서 그룹사운드에서 활동하던 윤창중 정석과 고향 벌교로 내려온다. 오월 광주를 경험한 그는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고 역전식당 딸 홍자가 합류, 밴드 ‘블랙시걸’이 탄생한다. 윤창중의 어머니이자 60년대 가수왕 동백은 히트곡 제조기 걸러시 박과 벌교를 찾고, 걸러시 박은 홍자에게 재능을 발견한다.

‘천개의 눈’ 등을 연출한 박해성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오영목씨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김종필·송홍진·백익남·이지현씨 등 서울과 광주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문의 062-511-2759.

바그너·베르디 탄생 200년 광주시향 31일 연주회

올해는 작곡가 바그너와 베르디가 탄생 20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두 작곡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 3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에서 눈길을 끄는 건 지휘봉을 잡는 김홍재(사진) 울산시향 상임지휘자다. 재일한국인 김씨

는 도호 음대 재학시절 세이치 오자와, 독일 유학당시에는 윤이상을 사사했으며 와타나베상, 사이토상 등 각종 상을 수상했다.

또 히사이시 조와 함께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OST 작업을 진행하고 국립극관현악단 초빙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50년간 무국적 조선인에서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그는 2007년부터 울산시향을 이끌고 있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과 죽음’, ‘로엔그린’ 3막 ‘전주곡’, ‘방랑하는 네덜란드인 서곡’ 등이다. 신에 피아니스트 박종혜씨가 리스트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협연한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충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신양파크호텔 가정의 달 페스티벌

가족·스승 동반 이벤트 | 행사기간 2013. 5. 1(수) ▶ 5. 31(금)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Special 이벤트!!

7~8월 웨딩 확정시 특별할인가격

뷔페 33,000원 ~ 스테이크 38,500원 ~

Membership 신설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로 초대합니다

① 휘트니스 Gold 멤버십 (보증금 6개월: 125만원 1년: 248만원)

②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297,000원

Shin Yang Park Hotel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

행사1 중식당 SET메뉴, 일반식사 4인이상 드실경우 1인무료

<특별메뉴> (대사이즈 주운시(소사이즈 가격 적용 판매 돼지고기 탕수육(대) ₩41,800 → ₩30,800

전 가 복(대) ₩82,500 → ₩60,500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2 양식당 스테이크 (안심/등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무료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3 중식당&양식당 이용고객 경품추첨 (당일 명함 수거 및 번호 배부 추첨)

5월 3일~10일, 15일 스승의 날 17일 석가탄신일, 21일 부부의 날 (점심) 오후 2시 (저녁) 오후 8시 추첨 레스토랑 상품권 각 1매